

## 「개역개정」 창세기 9장 13-17절의 「무지개」 번역에 대한 번역사적 고찰

차준희(한세대) · 김치현(한세대)

### 1. 들어가는 말

창세기 9장 13-17절에서 하나님은 증표로 **קַוְיָ**(케세트/활)를 구름 속에 놓는다(창 9:13). 이 케세트에 대한 번역으로 인도-유럽조어 중 슬라브어파를 제외한 모든 계통의 언어에서 1차적으로 ‘활’<sup>1</sup>로 번역한다. 그러나 슬라브어파와 몽골 그리고 한자 문화권으로 묶이는 중국, 일본, 한국은 케세트에 대한 번역으로 ‘무지개’<sup>2</sup>를 사용한다. 왜 슬라브어파

1 케세트를 ‘활’로 번역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어(LXX, FGB), 라틴어(불가타, 고대 시리아어(페취타), 영어(NRSV, KJV, ESV, CEB, BBE, ASV, TYN, DBY), 독일어(EIN, LB, ZB), 프랑스어(LSG), 이탈리아어(CEI 2008), 스페인어(RVR 09), 포르투갈어(ALMEIDA), 힌디어(Hindi Bible), 페르시아어(Farsi Persian Bible), 아랍어(SVD), 리투아니아어(Lithuanian Bible).

2 케세트를 ‘무지개’로 번역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어(Russian, Synodal Bible[1825], Библия,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2000]), 우크라이나어(Ukrainian Bible), 체코어(Czech Bible Kralicka), 크로아티아어(Croatian Bible), 불가리아어(Veren's Contemporary Bulgarian Bible), 몽골어(МОНГОЛ АРИУН БИБЛИ), 중국어(CUV, 新舊約聖經[1904], 新舊約聖經[1924], 古新聖經殘稿[2014]), 일본어(新改譯), 한국

<sup>3</sup>와 몽골,<sup>4</sup> 중국, 일본, 한국만 케세트를 ‘무지개’로 번역하는지에 대해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성서 번역의 역사를 되짚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연 ‘무지개’가 케세트에 대한 정확한 번역인지 검토해 볼 것이다.<sup>5</sup>

## 2. 중국에서의 성서 번역

한자 문화권의 성서 번역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오늘날 확인 가능한 번역본 중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창세기를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예수회 신부 푸와로(Louis de Poirot; 1735-1813년)다. 그가 1790년 이전에 만주어로 성서를 번역한 사실은 팡시(Panzi)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sup>6</sup> 이후 그는 중국어로도 성서를 번역

어(「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등).

- 3 참조.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135-137.
- 4 몽골의 성서 번역에는 한국인 선교사와 일본인 선교사가 번역 위원으로 참여했기에 몽골어 성서는 한국, 일본 성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성서 번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타카시 시마무라,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안중환 역, 「성경원문연구」 19호 (2006년 10월), 200-214.
- 5 고대 한자 역본들은 “信望愛”, <https://bible.fhl.net/ob/index.html> (2024.4.8). “YouVersion”, <https://www.bible.com/bible/88/GEN.1.1> (2024.4.8.)을 통해 창세기 9:13-17의 번역을 확인했다. 아르메니아 역본은 “Arak29”, [https://www.arak29.org/bible/book/tGen\\_9.htm](https://www.arak29.org/bible/book/tGen_9.htm) (2024.4.8.)을 참조했다. 한글고본성서는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2024.4.8.)과 “고본성서 원문보기”,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4](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4)(2024.4.8.)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했다. 만주어 성경의 경우 푸와로의 만주어 창세기 역본을 독일어로 번역한 Hartmut Walravens 교수가 E-mail로 보내 준 푸와로 신부의 창세기 필사본 사진에서 무지개(nioron)로 번역한 것을 확인했다.
- 6 김동소, “최초 중국어, 만주어 성서 역성자 하청태 신부”, 「한국알타이학회」 13권 (2003년 6월), 15-39, 특히 21; S. Y. Yu, “A Brief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into Chinese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 「성경원문연구」 19호 (2006년 10월), 153-75, 특히 155; 오미영, “초기 한일성서번역에 나타난 중국한문성서의 영향”, 「일본연구」 23호 (2004년 1월), 547-564, 특히 549. 특히 바제는 신약 사복음서를 축약하여 하나의 복음서처럼 번역하고 그 이후 히브리서 1장까지 번역했다; 바제 이전 부분적으로 성서를 중

했다. 이는 「고신성경」(古新聖經)으로 창세기는 2권으로 번역되었다.<sup>7</sup> 그가 성서를 번역할 때 사용한 대본은 제롬의 불가타이다.<sup>8</sup> 그는 창세기 9장 13-17절의 ‘아르쿠스’(arcus, 활; אַרְכּוּשׁ에 대한 라틴어 번역)를 만주어 ‘niron’(니오론/무지개)으로, 중국어 ‘무지개’(虹)로 번역한다. 당시 만주어는 청나라의 공용어로 조선에도 만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고 만주에도 조선인이 살았기에 조선이 만주어 성서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푸와로는 청나라와 러시아의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sup>10</sup> 그의 만주어 번역 필사본이 러시아에서도 발견되는 것<sup>11</sup>을 포함하여 푸와로의 번역은 당시 청나라, 러시아 정교회 및 한국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푸와로 이후 중국어로 성서를 번역한 사람은 인도에서 성서를 번역한 라사르(J. Lassar)와 마쉬만(J. Marshman)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르메니아 성서를 참조하여 번역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영어와 독일어 성경을 참조하여 성서를 번역했다.<sup>12</sup> 이들은 1822년 최초의 개신교 성서를 출간한다.<sup>13</sup> 아르메니아 성서는 ‘케세트’에 대한 번역으로

---

국어로 번역한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 Zheng, “De Poirot’s Chinese Bible and Its Influence”, K. K. Yeo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in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95-111, 특히 95-98.

7 정중호,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12-40, 특히 31.  
 8 H. Zheng, 앞글, 97.  
 9 정중호, 앞글(2022), 137.  
 10 김동소, 앞글, 135.  
 11 정중호, 앞글(2022), 133.  
 12 蔡錦圖, 「聖經在中國」(香港: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2018), 121.  
 13 황예림, “인도에서 이루어진 한문 성서의 번역·출판 배경과 경위”, 「성경원문연구」 38호

‘활’(活)을 사용한다. 케어리(Carey)의 편지에 따르면, 마쉬만은 자신의 중국어 번역본과 히브리어 본문을 대조하여 교정 작업을 진행했다.<sup>15</sup> 그럼에도 이 역본의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는 ‘무지개’(虹)로 번역된다.<sup>16</sup>

그로부터 1년 후인 1823년 모리슨(R. Morrison)과 밀른(W. Milen)은 「신천성서」(神天聖書)를 출간한다. 이들은 성서 번역 시 구약의 히브리어 원본과 신약의 그리스어 수용 본문(Textus Receptus), 바세 역본과 KJV를 사용했다.<sup>17</sup> 그러나, 한국어 성서번역과 일본어 성서 번역의 “원본”으로 사용된<sup>18</sup> 「신천성서」는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와 활(bow)에 대한 번역으로 ‘무지개’(虹)를 사용한다.<sup>19</sup>

따라서 푸와로, 라사르-마쉬만, 모리슨-밀른은 중국어로 번역할 때 모두 대본을 가지고 번역했으나, 자신들이 주장한 번역 원칙 중 “본문에 ‘충실한’ 번역”<sup>20</sup>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들의 번역은 언어적 측면을 분해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문화적 측면을 골라내어 해석하고 그것을 성서에 새로이 덧입혀서 재생산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2016년 4월), 159-186, 특히 167, 173.

14 “Arak29”, [https://www.arak29.org/bible/book/tGen\\_9.htm](https://www.arak29.org/bible/book/tGen_9.htm) (2024.4.8.)

15 Baptist Missionary Society(ed.), “Extract of a Letter from Mr. Carey (April 20th, 1808)”, in *Periodical Accounts, v. III, no. XVIII* (1807-1808), (London: Baptist Missionary Society, 2018), 491-493. 특히, 491.

16 “馬殊曼 - 拉撒文禮譯本”, <https://www.bible.com/bible/2323/GEN.9>. (2024.4.8.)

17 이효림, “20세기 이전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와 의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집 (2019년 10월) 7-39, 특히 14-17.

18 윗글, 16

19 “神天聖書”, <https://www.bible.com/bible/2283/GEN.9>. (2024.4.8.)

20 윗글, 13, 17.

21 참조, 이상원, “번역의 문화적 측면이란 무엇인가?”, 조의연 편,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접근」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19-52, 특히, 25; 이효림, “십계명(출 20:1-17)의 중(中)·한(韓) 성서 비교 연구”, 「구약논단」 73집

이들의 번역본 이후에 번역된 중국어 성서는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를 모두 ‘활’이 아닌 ‘무지개’(虹)로 번역한다. 그 예로 1838년의 「사인조역본」(四人小組譯本)<sup>22</sup>, 그리고 한국 초기 성서 번역의 직접적인 대본으로 주요 영향을 끼친 1854년의 「대표역본」(委辦譯本)<sup>23</sup>이 있다.<sup>24</sup>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된 이 역본은 문리체로 번역되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이 일본, 한국 등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다른 나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기대에 맞춰 「신천성서」와 「대표역본」은 직접적으로 한글 개역 성서의 대본으로 사용되었다.<sup>25</sup> 「대표역본」에 대해 셰필드는 그들이 중국인 학자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줌에 따라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바꾸고 생략하고 다시 조합했다고 비판한다.<sup>26</sup>

또한, 1863년의 「브릿지맨-컬버트슨역본」(舊約全書)도 ‘무지개’(虹)로 번역한다.<sup>27</sup> 셰레셰브스키(Samuel I. Joseph Schereschewsky)가 창세기를 관화체로 번역한 1866년의 「창세기관화」(創世記官話)에서도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를 ‘무지개’(虹)로 번역하고 있다.<sup>28</sup> 이후 그는 1875년 관화체 구약전서인 「북경관화구약전서」(北京官話舊約全書)를 출간하는데 이 성서는 이전 중국어 번역본(「대표역본」, 「브릿지맨-컬버트슨

(2019년 9월), 248-272, 특히, 267.

22 “四人小組譯本”, <https://bible.fhl.net/ob/nob.html?book=461> (2024.4.8.)

23 “委辦譯本”, <https://www.bible.com/bible/2295/GEN.9>. (2024.4.8.)

24 오미영, *읽글*, 552; 이효림, *읽글* (2019 ㄴ), 24.

25 이효림, *읽글* (2019 ㄴ), 24. 「신천성서」와 「대표역본」의 영향은 ‘안식일’, ‘희년’ 등의 용어와 구약성서 중 14권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6 North China Mission, 16.3.12, 1900-1909; 요우빈,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구약학*, 이환진 역, 「성경원문연구」 37호 (2015년 10월), 281에서 재인용.

27 “裨治文 - 克陸存譯本”, <https://www.bible.com/bible/2213/GEN.9>. (2024.4.8.)

28 “舊約創世記官話”, <https://bible.fhl.net/ob/nob.html?book=192> (2024.4.8.)

역본)을 참조했다.<sup>29</sup> 여기서도 그는 ‘무지개’로 번역한다.<sup>30</sup>

1902년 천문리체로 출간된 「신구약성경」(新舊約聖經)은 히브리어 성서와 그리스어 성서를 대본으로 사용한다.<sup>31</sup> 그러나 쉘레쉴브스키는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를 ‘무지개’로 계속 번역한다.<sup>32</sup> 이 「신구약성경」은 「성경 개역」(1938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33</sup> 또한, 이는 최초의 한글 구약전서인 「구약전서」(1911년)에 여러 용어와 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34</sup>

요약하자면, 한글 성서 번역에 영향을 준 한문성서는 「신천성서」, 「대표역본」 그리고 천문리체의 「신구약성경」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에 대한 번역으로 ‘무지개’(虹)를 사용한다.

### 3. 일본에서의 성서 번역

일본에서 최초의 성서 번역은 1548년 자비에르에 의해 이루어졌

---

29 I. Eber, *The Jewish Bishop and the Chinese Bible: S.I.J. Schereschewsky (1831-1906)* (Leiden, Boston, Köln: Brill, 2016), 113-114.

30 “北京官話譯本”, <https://www.bible.com/bible/1581/GEN.9>. (2024.4.8.)

31 이효림, *읽글* (2019), 30; 참조. I. Eber, *읽글*, 153. 현대 중국어 성경(CUV)은 쉘레쉴브스키의 번역을 따라간다.

32 “新舊約聖經”, <https://bible.fhl.net/ob/nob.html?book=209> (2024.4.8.)

33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호 (2010년 10월), 31-55, 특히 32.

34 쉘레쉴브스키의 천문리체 「신구약성경」의 「구약전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환진, *읽글*, 31-55; 이환진, “쉘레쉴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8호 (2011년 4월), 40-52;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8호 (2021년 4월), 7-25, 특히 15-22;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호 (2021년 10월), 7-28, 특히 21-25.

다.<sup>35</sup> 이후 신약성서 위주의 성서 번역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브리  
지맨-컬버트스역본」은 일본어 번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sup>36</sup> 또한,  
「사인조역본」도 일본성서 번역의 대본으로 많이 사용된다.<sup>37</sup>

일본에서의 구약성서 번역은 1887년에 완료되고 明治譯으로 불리  
는 「舊新約全書」를 출간한다.<sup>38</sup> 1955년 BHK 3판을 대본으로 구약 전  
권을 번역한 「聖書」(구어역)<sup>39</sup>는 히브리 원어를 참조했지만, 창세기 9장  
13-17절에서 케세트에 대한 번역으로 ‘무지개’(にじ)를 사용한다.<sup>40</sup> 그  
러나 보수 진영의 개신교에서 이 역본에 신학적 편견이 있다고 주장하  
며, 1973년 독자적으로 번역한 「聖書 新改訳」을 출간한다.<sup>41</sup> 하지만, 그  
들도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를 ‘무지개’(虹)<sup>42</sup>로 번역하고 있다.

1978년 가톨릭과 개신교는 「新約聖書 共同譯」을 출간한다. 이  
때 사용된 대본은 UBS3과 BHS다. 1987년 「聖書 新共同譯」이라는 이  
름의 개정본이 출간되지만,<sup>43</sup>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를 ‘무지  
개’(虹)로 번역한다.<sup>44</sup>

일본 번역 성서의 특징은 1955년 「聖書」에 사용한 ‘무지개’(にじ)  
가 1973년 「聖書 新改訳」에서는 ‘무지개’(虹)로 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중국처럼 처음 번역된 구약성서의 용어 사용을 따라 이후의 번

---

35 Katsuomi Shimasaki,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4호 (2009년 4월), 116-126, 특히 116.

36 Katsuomi Shimasaki, 윗글, 117-118; 오미영, 윗글, 553.

37 Katsuomi Shimasaki, 윗글, 117-118; 오미영, 윗글, 553-556.

38 오미영, 윗글, 556.

39 Katsuomi Shimasaki, 윗글, 122.

40 "聖書 - 口語訳", [https://www.bible.com/ko/bible/1820/GEN.9.\(2024.4.8.\)](https://www.bible.com/ko/bible/1820/GEN.9.(2024.4.8.))

41 Katsuomi Shimasaki, 윗글, 123.

42 "新改訳 第三版", <https://www.seisho.or.jp/biblesearch-result> (2024.4.8.)

43 Katsuomi Shimasaki, 윗글, 123.

44 "聖書 新共同譯", [https://www.bible.com/ko/bible/1819/GEN.9.\(2024.4.8.\)](https://www.bible.com/ko/bible/1819/GEN.9.(2024.4.8.))

역서에서도 꾸준히 케세트를 ‘무지개’로 번역하고 있다.

#### 4. 한국에서의 성서 번역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서는 신약으로, 1887년 번역된 로스(J. Ross; 1842-1915년)의 「예수성교전서」이다. 로스는 1872년 만주에 선교사로 왔으며 1877년 한국어 성서 번역에 착수한다.<sup>45</sup> 그가 한국어로 된 최초의 성서를 번역했지만, 그는 본래 만주 선교사로 만주와 중국의 역사, 문화, 종교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sup>46</sup> 그렇기에 그는 만주 지역에서 유통되던 성경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천성서」, 「대표역본」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47</sup>

1906년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창세기가 출간된다. 이 책은 1911년 「구약전서」에 표지만 바뀐 채 들어가게 된다.<sup>48</sup> 민영진은 「창세기」의 한글 번역자들은 원어가 아닌 한문 성경의 번역을 따라 번역했을 가

---

45 M. S. Kee, "Translation of the Bible in *Hangul*", W. W. Lee(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in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23-40, 특히, 24.

46 참조. J. Ross, *The Manchus or the Reigning Dynasty of China: Their Rise and Progress* (London: Houlston and Sons, 1880); J. Ross, *The Original Religion of China* (Edinburgh: Oliphant, Anderson & Ferrier, 1909), 37. 그는 용어 논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에서 일어난 용어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안성호, "19세기 중반 중국어 대표자역본 번역에서 발생한 '용어논쟁'이 초기 한글성서번역에 미친 영향(1843-1911)", 「한국기독교외역사」 30호 (2009년 3월), 213-250, 특히 215-230; 황예렘, "일본 초기 개신교의 신 용어 '神(かみ)' 번역사에 대한 고찰: 중국 초기 개신교의 용어 논쟁과 관련하여", 「성경원문연구」 36호 (2015년 4월), 231-251, 특히 236-47; I. Eber, 윗글, 173-176.

47 오미영, 윗글, 561.에서 그녀는 로스역의 대본으로 대표역본 주장한다; 이효림, 윗글 (2019 ㄴ), 16. 그녀는 로스역을 번역하기 위해 신천성서를 참고했다고 주장한다.

48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 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권 1호 (2010년 4월), 5-37, 특히 8.

능성을 제시한다.<sup>49</sup> 이러한 가능성은 ‘한글 성경 번역 방법’에 나타나는 “한국인 조사들은 한문대표자역(Delegates’ Version)을 대본으로 번역하되 일본어 성경도 참고하며”<sup>50</sup>라는 표기로 지지받는다. 즉, 한글 성서인 「구약전서」의 대본은 「대표역본」이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최초의 한글 창세기 역본인 「창세기」 9장 13-17절에서는 ‘활’이 아닌 ‘무지개’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한글 번역 성서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성서의 영향을 받고,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영진은 창세기 49장 10절의 [שִׁילֹה] (שִׁילָה) אֶדְכִי-אָבִיב (아드 키-야보 실로/실로가 오시기까지)에 대한 번역이 「구약전서」, 「성경 개역」, 「개역개정」까지 일관되게 “실로가 오시기까지”로 번역된 것을 지적한다.<sup>51</sup> 이처럼 창세기 9장 13-17절의 ‘무지개’도 한글 번역본에서도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최초 번역에 나타난 해석적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한 한문 성서 즉, 「신천성서」와 「대표역본」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5. 고대 히브리 독자들의 문화적 배경

먼저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신이 ‘활’을 들고 있다는 사상은 클링베일(M. Klingbeil)의 연구에서 확인 가능하다.<sup>52</sup> 그는 고대 근동의 전사로서의 신이 나타난 사료를 4가지 모티프, ‘공격하는 신’, ‘궁수 장면에서

49 윗글, 22, 29.

50 류대영 외,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6.

51 민영진, 윗글, 27-28.

52 M. Klingbeil, *Yahweh Fighting from Heaven: God as Warrior and as God of Heaven in the Hebrew Psalter an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9).

의 신', '창을 들고 있는 신', '무장한 신'으로 구별한다.<sup>53</sup> 또한, 그는 마지막 모티프인 '무장한 신' 모티프는 레반트에서도 그 샘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sup>54</sup> 이를 통해 레반트에서 신이 자신의 공격 무기로서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익숙했다고 말할 수 있다. 클링베일이 제시한 전사로서의 신이 나타난 사료 27개 중 15개에서 신은 활로 무장하고 있다.<sup>55</sup> 특히, '무장한 신'으로 묶인 모든 사료에서 신들은 활을 지니고 있다.<sup>56</sup>

도상학적 사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학 작품에서도 신의 무기로서 '활'이 언급되며, '활'은 공격 무기로서 나타난다.<sup>57</sup> 따라서 고대 근동에서 신이 자신의 무기로서 활을 들고 있는 모티프는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 9장 13-17절의 소유격 접미사를 사용한 '나의 활'은 하나님에게 귀속된 하나님의 무기임을 시사한다.<sup>58</sup> 고대 근동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홍수 이야기에서 홍수 이야기와 활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안주 신화(The Myth of Zu [Anzu])의 홍수 이야기에서 '활'은 공격무기로 나타난다.<sup>59</sup>

또한,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서는 하늘에 활을 걸어 두는 모티프가 나온다.<sup>60</sup> 볼테(E. van Wolde)는 이를 '활'의 은유적 개념화 과정을

53 윗글, 168-196.

54 윗글, 196.

55 윗글, 176, 178-179, 180, 181-183, 188, 190-192, 194-195.

56 윗글, 188, 190-192, 194-195, 261.

57 J. B. Pritchard(ed.),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29, 31.

58 J. C. Gertz, *Das Erste Buch Mose (Genesis): Die Urgeschichte Gen 1-11*,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285; J.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27/2001), 311, 각주 1.

59 참조. J. B. Pritchard(ed.), 윗글, 97-98.

60 윗글, 35.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61</sup> 이를 통해 고대 독자들은 ‘활’을 하늘에 걸어 두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야콥(B. Jacob)은 케세트가 **קֶסֶת**(베아난/구름 속의)과 함께 사용될 때 무지개로 해석되기에(겔 1:28)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도 무지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2</sup> 그러나 이에 대해 볼데는 케세트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및 베아난의 성서 내 용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케세트는 ‘무지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63</sup> 그는 무지개를 표현하는 여러 언어는 ‘아치 모양, 우천과의 관계’, ‘아치 모양, 하늘에 위치함’, ‘아치 모양, 색상’의 개념을 포함하며, 기상학이라는 인지 영역에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sup>64</sup> 따라서 볼데는 케세트와 아난의 개념적 내용은 단순히 ‘활’과 ‘구름’이라고 말한다. 그는 욥기 26장 8절과 나훔 1장 3절을 근거로 높은 하늘에 위치한 **קֶסֶת**(아브/구름)가 물을 몰고 오는 구름인 반면 아난은 물의 시상이 없는 구름 덩어리라고 분석한다.<sup>65</sup> 결론적으로 볼데는 케세트-베아난에는 먹구름, 비, 햇빛의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함축하지도 않기에 이 어구가 무지개를 의미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sup>66</sup>

창세기와 고대 근동의 문학 작품들과의 차이점은 게르츠(J. C.

61 E. van Wolde, “One Bow or Another? A Study of the Bow in Genesis 9:8-17”, *VT* 63 (2013), 124-149, 특히, 137.

62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Verlag, 1934/2000), 255; 또한, G. Fischer, *Genesis 1-11* (HThKAT; Freiburg/Basel/Wien: Herder, 2018), 504는 창세기 9:13-16의 케세트는 ‘구름’과 함께 사용되기에 ‘자연현상’으로 보며 무지개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J. C. Gertz, *윗글*, 285는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 이 구름 속에 ‘활’을 걸어놓으셨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은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63 E. van Wolde, *윗글*, 125-129.

64 *윗글*, 126-127.

65 *윗글*, 127, 각주 8.

66 *윗글*, 128.

Gertz)가 제대로 지적했듯이 창세기 홍수 이야기에서는 고대 근동의 홍수와 달리 혼돈 모티프가 없다.<sup>67</sup> 즉, 홍수 자체가 하나님의 공격 무기(활)다. 쟁어(E. Zenger)는 이 활을 혼돈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의지’로 해석했다.<sup>68</sup> 그러나 하나님의 ‘활’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다시 말해 ‘활’을 거는 하나님의 행동은 화해와 자비의 표시로 자신의 공격 무기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그의 의지를 상징한다.<sup>69</sup>

결론적으로 당시 히브리 성서의 1차 독자들은 주변 문학에서 나타난 사상들을 수용했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공격 무기로서 ‘활’을 들고 있는 것과 이를 하늘에 거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를 ‘활’로 이해했을 것이다.

게르츠를 따라 케세트를 ‘활’로 먼저 이해한다면 우리의 해석 또한 폭넓어질 것이다. ‘무지개’로 먼저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활’이 주는 메시지인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제한하여 구름 속에 활을 놓았다.’를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케세트를 히브리 성서의 1차 독자가 이해한 ‘활’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 ‘무지개’를 가지고 온다면,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를 포함한 노아 이야기에서 더욱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 본문의 케세트에 대한 한글 번역은 ‘활’로 해야 한다.

---

67 J. C. Gertz, *윗글*, 285.

68 E. Zenger, *Gotes Bogen in den Wolken: Untersuchungen zu Komposition und Theologie der priesterschriftlichen Urgeschichte* (SBS 11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 Bibelwerk, 1987), 131.

69 J. C. Gertz, *윗글*, 285; J. Wellhausen, *윗글*, 311 각주 1.

## 6. 나가는 말

본론에서 무지개로 번역하는 나라 중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여 성서 번역사를 짚어 보았다. 한자 문화권에서 최초로 번역된 성서는 푸와로의 만주어와 중국어 번역본들이며 그의 대본은 불가타이다. 이 번역본들에서 푸와로가 창세기 9장 13-17절의 아르쿠스를 ‘무지개’(nioron, 虹)로 번역한다. 이후 「신천성서」(모리스-밀튼역본; 1823년)와 「대표역본」(1854년) 모두 케세트를 ‘무지개’로 번역한다. 이 역본들은 한글로 번역된 「구약전서」(1911년)와 「성경 개역」(1938년)의 대본으로 쓰였으며, 용어 면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창세기는 히브리어 원본, LXX, 불가타 등 고대 역본이나 영어 번역(ASV, RV)을 따른 것이 아닌, 중국어 번역 위주로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번역하는 나라(중국)의 문화적인 배경에 맞춰 구름 속의 ‘활’을 문화적 해석 또는 번역 전통을 통해 ‘무지개’로 번역했다. 즉, ‘케세트’를 중국의 문화적 배경에 맞춰 ‘무지개’로 재생산했으며 이를 고수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에 따르면 케세트를 ‘활’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따라서 히브리 성서의 1차 독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공격 무기로서 ‘활’을 들고 있는 것과 그 ‘활’을 스스로 제한하여 구름 속에 거치하신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창세기 9장 13-17절의 케세트를 ‘무지개’로 번역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재생산’의 결과물이다. 중국의 문화적 배경(삶의 자리)을 제외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삶의 자리)에 맞춘 ‘활’이다. 또한, ‘무지개’보다 ‘활’로 번역했을 때 성서 해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다. ‘무지개’로 번역한다면 ‘활’로 번역했을 때 도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제한하여 구름

속에 활을 놓았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창세기 9장 13-17절에 나타난 케세트는 ‘활’로 번역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동소, “최초 중국어, 만주어 성서 역성자 하청태 신부”, 「한국알타이학회」 13권 (2003년 6월), 15-39.
- 류대영 외,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 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권 1호 (2010년 4월), 5-37.
- 안성호, “19세기 중반 중국어 대표지역본 번역에서 발생한 ‘용어논쟁’이 초기 한글 성서번역에 미친 영향 (1843-1911)”, 「한국기독교와역사」 30호 (2009년 3월), 213-250.
- 오미영, “초기 한일성서번역에 나타난 중국한문성서의 영향”, 「일본연구」 23호 (2004년 1), 547-564.
- 요우빈,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구향화, 이환진 역, 「성경원문연구」 37호 (2015년 10월), 278-291.
- 이상원, “번역의 문화적 측면이란 무엇인가?”, 조의연 엮음,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접근」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19-52.
-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시편 85:10-13과 잠언 (1:1-7) 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호 (2010년 10월), 31-55.
- 이환진, “쉐레셰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8호, (2011년 4월), 40-52.
- 이효림, “십계명(출20:1-17)의 중(中)·한(韓) 성서 비교 연구”, 「구약논단」 73집 (2019년 9월), 248-272
- 이효림, “20세기 이전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와 의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집 (2019년 10월), 7-39.
- 장석정,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8호 (2021년 4월), 7-25.

- 장석정, “「성경전서」(1911년)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호 (2021년 10월), 7-28.
- 정중호,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12-40.
-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 타카시 시마무라,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안중환 역) 「성경원문연구」 19호 (2006년 10월), 200-214.
- 황예렘, “인도에서 이루어진 한문 성서의 번역: 출판 배경과 경위”, 「성경원문연구」 38호 (2016년 4월), 159-186.
- 황예렘, “일본 초기 개신교의 신 용어 ‘神(かみ)’ 번역사에 대한 고찰: 중국 초기 개신교의 용어 논쟁과 관련하여”, 「성경원문연구」 36호 (2015년 4월), 231-251.
- Baptist Missionary Society(ed.), “Extract of a Letter from Mr. Carey(April 20th, 1808)”, in *Periodical Accounts, v. III, no. XVIII (1807-1808)* (London: Baptist Missionary Society, 2018), 491-493.
- Eber, I., *The Jewish Bishop and the Chinese Bible: S.I.J. Schereschewsky (1831-1906)* (Leiden, Boston, Köln: Brill, 2016).
- Fischer, G., *Genesis 1-11* (HThKAT;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18).
- Gertz, J. C., *Das Erste Buch Mose (Genesis): Die Urgeschichte Gen 1-11*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 Jacob, 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Verlag, 1934/2000).
- Katsuomi,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4호 (2009년 4월), 116-126.
- Kee, M. S., “Translation of the Bible in Hangul”, W. W. Lee(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in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23-40.
- Klingbeil, M., *Yahweh Fighting from Heaven: God as Warrior and as God of Heaven in the Hebrew Psalter an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99).
- Pritchard, J. B.(ed.),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Ross, J. *The Manchus or The Reigning Dynasty of China: Their Rise and Progress* (London: Houlston and Sons, 1880).
- Ross, J. *The Original Religion of China* (Edinburgh: Oliphant, Anderson & Ferrier, 1909).

- van Wolde, E., "One Bow or Another? A Study of the Bow in Genesis 9:8-17", *VT* 63 (2013), 124-149.
- Wellhausen, J.,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27/2001).
- YU, S. Y., "A Brief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into Chinese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 「성경원문연구」 19호 (2006년 10), 153-75.
- YU, S. Y., "Bible Translations for Ethnic Minority Groups in China", K. K. Yeo(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in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129-145.
- Zenger, E., *Gotes Bogen in den Wolken: Untersuchungen zu Komposition und Theologie der priesterschiflichen Urgeschichte* (SBS 11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 Bibelwerk, 1987).
- Zheng, H., "De Poiror's Chinese Bible and Its Influence", K. K. Yeo(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in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95-111.
- 蔡錦圖, 「聖經在中國」香港: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2018.

#### 검색어

창세기 9:13-17, 무지개, 활, 케세트, 성서 번역

[ ABSTRACT ]

## Translation Historical Exploring on the ‘Rainbow’ in Genesis 9:13-17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Jun Hee Cha · Chi Hyun Kim

Hansei University

In examining Bible translations within Chinese character cultural sphere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ndering of  $\text{קֶשֶׁת}$  (*qešet*/bow) as ‘rainbow’ (nioron, 虹) in Chinese translations of Genesis 9:13-17. Starting with Louis de Poirot’s Manchu and Chinese translation, which first introduced the term ‘rainbow’, subsequent versions like the Morrison-Milne Version (1823) and the Delegates’ Version (1854) also adopted this interpretation. These versions,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d Korean translations, suggesting that translators, especially Poirot, interpreted ‘arcus’ or ‘*qešet*’ as ‘rainbow’ in line with China’s cultural context. This adaptation reflects a cultural reinterpretation rather than a strict adherence to the original Hebrew context. In contrast, interpreting ‘*qešet*’ as ‘bow’ rather than ‘rainbow’ offers a wider range of interpretative possibilities. The choice of ‘rainbow’ can overlook the message of God’s self-restraint by placing the bow in the clouds - a depth of meaning preserved with ‘bow.’ Therefore, ‘*qešet*’ in Genesis 9:13-17 is more accurately translated as ‘bow.’

key words

Gen 9:13-17, Rainbow, Bow, *qešet*, Bible Translation

www.kci.go.kr

투고일: 2024년 04월 13일  
심사일: 2024년 04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5월 07일

[www.kci.go.kr](http://www.kci.go.kr)